

노동계 양보로 극적 합의...신의와 약속 이행이 성공 좌우

정상궤도 오른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이탈했던 노동계가 29일 다시 돌아온 것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내 상생위원회 설립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으로 노동계가 주축이 돼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물론 광주시의 노동 정책과 노동 관련 단체, 시설 등을 지원·운영하는 이른바 노동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 행정 참여를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노동계 입장에선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진통 끝에 합의한 상생위원회 설립도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노동이사제' 등의 대안적 성격을 일부 담고 있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이날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GGM 임원들 적정 임금 설정, 시민자문위 구성, 현대차 추천 이사 해촉 등 이른바 5대 요구를 모두 철회하기로 한 것도, 상생일자리 재단과 상생위원회 설립으로 노동계의 입지를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사업 불참을 선언한 뒤 한달 가까이 침묵하던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이날 오전 11시 30분 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등에 관해

노동이사제 등 5대 요구 철회

상생위원회 설치 놓고

글로벌모터스 치열한 토론

문구 해석 등 갈등 불씨도

만장일치 찬성과 함께 윤종해 광주지역본부 의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측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측은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통해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 설치안을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한때 노사양측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 분위기가 다시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다행히 이날 오후 2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결렬 직전에서 합의로 돌아선 배경에는 노동계의 5대 요구 철회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이날 수용한 노사상생위원회는 지난해 1월 체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른 '상생노사발전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노사 관련 제반 문제를 논의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노동계 인사 등 5인으로 구성되며 노사 관련 문제를 논의해 대

표이사에게 제안하고, 대표이사는 상생 경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합의한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에 향후 진행 과정에서 문구 해석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노사상생위원회에 참여한 노동계측에서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에게 노사문제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는데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도 마찬가지다. 설립과정에서 인력 배치나 사업 범위 등을 놓고 광주시와 사측, 노동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설립 중단 사태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지역사회에서 노사간 갈등 발생시 상호 한발씩씩 양보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주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 의식한 듯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이날 "재단 설립과 상생위원회 설립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에 다시 북극하게 됐다"면서도 "다만 이런 신의와 약속이 지켜져야 하며, 광주 노동계도 광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자리 위기, 함께하면 이겨낼 수

2020. 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 상생 협력에 기초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인 서울 광진구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위기 이겨내자"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

"호텔업계 일자리 지켜줘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관광·호텔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노사협의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극복하는 방식은 이겨내려면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닌 고용유지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켜내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 호텔업계가 최근 일자리 보전 및 협력적 노사관계

를 위한 합의에 성공한 점을 거론하며 "일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모범과 희망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정부의 강력한 지원대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관광·숙박업 특별고용유지 지원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처럼 고용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도 반영돼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상생의 힘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

다. 여러분이 보여준 '연대와 상생'의 힘이 호텔업계를 넘어서 서비스업, 또 제조업 전 업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텔업계를 출발점 삼아 산업전반에서 노사 간 연대와 상생의 대화가 확산하고, 정부가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포함,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틀이 복원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석운 전국관광·서비스노동연맹 위원장은 "호텔업계가 그야말로 초도화됐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자기 권리만 주장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초들 염원 담긴 오색연등 눈 부시구나



김은영의 '그림 생각'

(310) 부처님 오신 날

때로 잊고 지내기도 하지만 삶은 고통의 바다임이 분명한 것 같다. 인간사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한 고비 넘겨도 즐거움과 행복은 잠시, 반드시 일정 분량의 고통이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부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중생에게 지혜를 일깨우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부처는 이 세계가 고타임을 알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뇌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미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기발랄하고 긍정적이면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국 매일매일 일상에서

용맹정진 해야 함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의 풍경은 언제나 지혜를 밝히는 오색 연등과 함께 연상된다. 민초들의 바람만큼 저마다의 사연을 소원지에 담아 매단 연등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은 유구한 세월 속에도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숙자화백(1942~)의 '축일-사월 초파일'(1997년 작)은 절 마당 가득 줄지어 서있는 연등 아래 고개 숙이며 소원을 비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두 손 모아 몸을 낮춰 기도하는 어머니와 막 허리를 편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그지없이 경건하다. 아마 짐작컨대 자식에 대한 한없는 관심과 사랑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리라. 풍부한 색채감각과 리얼리즘에 기초한 감각적인 회화세계를 펼쳐왔던 화백답게 연등과 팔각등의 색상과 구성에서도 현대적 미감이 느껴진다.

코로나 19감염방지를 위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 업오식은



이숙자 작 '축일-사월 초파일'

한 달 후에 열리지만 이미 사할마다 형형색색 걸린 연등이 푸른 하늘 아래 눈부시다. 사월 초파일이면 가장 정갈한 차림으로 불공드리러 가는 외할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비빔밥과 절편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아련하다. 그림 제목처럼 봄날 사월 초파일은 어린 마음을 마냥 들뜨게 했던 축제의 하루였던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정총리 "코로나 대응, 다음단계 진전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 전환과 관련, 29일 " 그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방역의식을 감안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기도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격정과 기대가 있는데, 연휴 기

간 대면 접촉이 크게 증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과연 지금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19일까지 약 한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서 내달 5일까지 2주간 수위를 낮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5일로 종료한 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간 뒤 내달 2일 정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3일께 최종 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 이행과 관련, 세부 지침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 노안 백내장
- 스마일 라식·라섹
- 녹내장
-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